

1. 한옥의 특성

1.1. 한옥의 개념

한옥(韓屋)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한옥이라는 단어는 융희2년(1907)에 작성된 ‘가사(家舍)에 관한 조복문서(照覆文書)’에도 등장하는 꽤 오래된 말이다.¹⁾ 한옥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 양식 건물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한옥이라는 말은, 한국의 전통건축물을 통칭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전통적인 살림집을 의미한다. 한옥은 사전적·일상적 의미가 매우 포괄적인 단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을 간단히 정의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최근 건축계의 논의를 바탕으로²⁾ 할 때 한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소 느슨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① 한옥은 건물(채)과 마당으로 구성된다. 한옥을 이루는 채는 한국의 전통적인 목구조 방식으로 구축된 구조물로, 나무·흙·돌·종이와 같은 자연재료로 지어진다. 한옥의 독특한 특징은 하나의 채에서 온돌과 마루가 결합된다는 점이며, 온돌과 마루가 짝이 되어 채의 공간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② 한옥은 관례적으로 살림집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으나 건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앞의 정의에 부합하는 건축물을 통칭한다.

③ 한옥은 그것이 지어진 시대에 따라 전통한옥·근대한옥·현대한옥 등으로 구분된다. 전통한옥은 시대·지역·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적·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이 글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양반주택, 곧 현존하는 전통한옥을 대상으로 한옥의 공간, 구조, 미학, 문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여기서는 근대한옥이나 현대한옥을 다루지 않으므로 편의상 전통한옥을 ‘한옥’이라고 줄여 말하기로 한다.

1.2. 한옥의 공간구성

1) 한옥의 배치

건축공간을 배치하는 것은 거주 영역을 규정하고 그 안의 열개를 구성하는 일이다. 한옥은 안채영역·사랑채영역·행랑채영역·사당영역 등 성격이 다른 여러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들 영역을 생활의 규범에 맞게 배열하는 것이 한옥 배치의 관건이다. 또한 한옥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거주공간을 뚜렷이 규정하되 그것을 주변의 공간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한다. 특히 한옥의 사랑채 혹은 별당의 영역은 주변의 마을공간 또는 주변경관으로 시각적으로는 물론 공간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볼 때 사랑채가 지나치게 개방적으로 보이고 그 앞에는 불필요할 정도로 큰 사랑마당이 있는 것은, 사랑채가 한 가족만의 공간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 마을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짐을 암시한다. 이같이 거주영역의 안팎이 연계되는 것은 한옥의 배치가 갖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한옥을 배치하는 데는 좌향(坐向)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좌향이란 어디를 등지고(坐) 어디를 향하는가(向) 하는 문제이다. 좌향론은 풍수이론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좌향은 바라보이는 요소, 곧 안대(案帶)의 선택에 기인한다. 한옥은 빼어난 모양의 산봉우리를 안대로 삼아 그것을 바라보고 자리잡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옥을 이루는 개개의 건물은 대개 정면에 뚜렷한 안대를 지니며 이러한 안대의 축에 맞추어 배치와 좌향의 축이 결정된다.³⁾ 이같이 건물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동서남북의 절대향보다 주변 지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좌향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는 물론 하나의 집을 이루는 채들 사이에서도 좌향이 일정치 않으며 심지어 일조에 불리한 서향이 나 북향을 취한 경우도 발견된다.



그림 1. 한옥의 안대
(경주 양동마을 서백당에서 본 성주봉)

조선시대의 양반주택에서는 가묘(사당)가 중시되었기 때문에 가묘의 위치도 주택의 배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주자가례(朱子家禮)》⁴⁾에 의하면, 집을 지을 때 가묘를 제일 먼저 짓고 그 위치는 정침(正寢)의 동편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가묘, 곧 사당은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儀式)공간이다.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남성이 거주하는 사랑채는 가묘가 놓이는 곳과 같은 방향에 놓이는 것이 상례이다. 주자가례에 따라 가묘가 안채의 동편에 놓였다면 사랑채도 안채의 동편에 자리잡게 된다.⁵⁾

2) 한옥의 공간구성

① 건물의 구성

한옥은 여성공간인 안채와 남성공간인 사랑채를 중심으로 행랑·사당·별당 등 여러 채(棟)로 구성된 복합체다. 그러나 ㅁ자형 주택에서처럼 사랑채, 안채 및 주요 부속채가 한 몸채로 구성되기도 한다. 안채와 사랑채가 별동으로 구성될 경우, 그 사이에 벽이나 담장이 설치되어 시선이 차단되나 한편으로는 필요에 따라 서로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건축적 처리가 이루어진다. 행랑채는 하인들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문간·창고 등과 같이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별당은 주인의 여가와 사교 등을 위한 공간으로 대전의 동춘당이나 상주의 대산루와 같이 살림채와 약간 거리를 두고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한옥을 이루는 건물, 곧 채는 기본적으로 칸(間)과 퇴로 구성된다. 칸은 한국 건축의 기본적인 공간단위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 또는 네 개의 기둥으로 규정되는 공간을 지칭한다. 전자의 의미로 사용될 때, 칸은 대개 8~9자의 크기로 정해진다. 한 자의 치수는 건축에 사용된 척도(자)의 종류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으나 후에 곡척(曲尺)이라 하여 30.3cm로 통일된다. 대규모의 주택을 흔히 99칸 집이라고 일컬을 때의 칸은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퇴는 칸의 절반 정도 폭으로 구성되는 공간이다. 칸으로 이루어진 몸체의 전후 혹은 좌우에 부가되어 퇴칸을 이룬다. 퇴칸에 설치된 마루를 뒗마루라 부른다.

조선 후기 이후 한옥의 공간적 특징 중 하나는 퇴공간이 발달한 것이다. 퇴는 기본적으로 몸체의 전후, 그리고 흔히 전후좌우 모두에 형성된다. 이런 전후(좌우)퇴 집은 대개 다섯 열의 도리와 보 방향으로 4열의 기둥을 가지는 오량구조를 갖는다(그림 6 참조). 퇴칸에 설치된 뒗마루는 실들 사이를 서로 긴밀히 연결하고 또 실내공간을 마당이나 외부와 연결하는 매개공간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퇴칸을 이용하여 실내공간의 확장을 꾀할 수 있다. 그리고 칸으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공간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가구와 비품들을 두기 어려웠기 때문에 퇴칸에 수납공간을 삼차원적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매개공간과 보조공간 역할을 하는 퇴칸이 있어서 한옥은 단순한 공간구성으로도 풍부한 생활을 무난히 담아냈다.



그림 2. 퇴칸(논산 명재고택 사랑채)

② 건물(채)의 공간요소와 이용방식

한옥의 주요 건물인 안채와 사랑채를 이루는 공간요소들을 바닥상태에 따라서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한옥은 한 채 내에 온돌과 마루 그리고 흙바닥의 공간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 있다.⁶⁾ 한옥이 가진 풍부한 공간구성은 폐쇄적인 온돌과 개방적인 마루 공간의 다양한 결합방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 한옥 건물(채)의 공간요소

채 바닥	안채	사랑채
흙	부엌	부엌 또는 함실
온돌	안방·옷방·건넌방	큰사랑방·작은사랑방
마루	대청·뒷마루	사랑대청·누마루·뒷마루

안채는 부엌·안방·옷방·대청·건넌방 등으로 구성된다. 안방은 기본적으로 안주인의 방이지만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공간이다. 여기서 가족단위의 생활이 일어나며 여자손님을 접대한다. 안방의 윗목에 인접한 옷방은 자녀들이 사용하는 방이다. 대청은 제사를 지내는 의식(儀式)공간이며 여름철에는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쓰인다. 대청은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위치하여 이 두 방을 적절히 나누어줌으로써 프라이버시를 확보해준다. 건넌방은 대개 며느리의 공간으로 쓰인다.

사랑채는 사랑방, 사랑대청(마루), 누마루 등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부엌이 부가되기도 한다. 사랑방은 기본적으로 남자 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맞는 곳이며 마을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로도 쓰인다. 삼대가 같이 살면서 아버지는 큰사랑방에서 아들은 작은 사랑방에서 각각 손님을 맞게 된다. 누마루는 다른 실들의 바닥보다 높이 조성되는데, 남자 주인이 대문이나 행랑채를 내려다보거나 연못 등의 조경과 주위 경관을 감상하는 장소이다.

③ 마당

한옥에서는 다양한 성격의 마당이 조성되는데, 마당은 대개 채와 짝을 이룬다. 안마당은 안채와 대응하며, 사랑마당은 사랑채, 행랑마당은 행랑채와 대응한다. 이 밖에도 여러 마당이 배치될 수 있는데, 그것이 대응하는 채의 명칭을 따서 문간마당·별당마당 등으로 불린다. 이같이 다양한 마당은 그것이 놓인 위치와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성되며 건축적 처리도 달라진다. 그림 3과 4의 충남 논산시 노성면 명재고택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한옥에서 안마당과 사랑마당의 공간적 성격이 대비된다. 요컨대 안마당은 구심적이고 내향적이며 수렴되는 성격을 갖는 반면, 사랑마당은 원심적이고 외향적이며 발산되는 성격을 갖는다. 사랑마당은 남자 주인이 집안사람들을 통솔하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는 장소로도 활용되므로 마을을 향하여 열리는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

비어있는 마당은 한옥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지의 중심에 안마당을 두고 그것을 건물(채)이나 담장이 둘러싸는 방식은 한옥의 일반적인 구성방법이다. 안마당의 성격은 바라다보는 정원이라기보다 일상적 생활공간이다. 따라서 평상시 안마당은 깨끗이 비워진 상태로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작물의 타작이나 곡물의 건조와 같은 농작업과 식사와 잔치, 가족의 단란과 같은 거주활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안마당은 지붕 없는 방과 같은 곳으로,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안채의 후면에는 뒷뜰을 둔다. 뒷뜰의 일조가 잘 되는 곳에는 우리의 식생활에 꼭 필요한 장독대가 설치된다. 경사지형에 위치한 집인 경우 뒷뜰의 후면을 노단으로 처리해 관목과 화초를 식재함으로써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집중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방지한다.



그림 3. 안채와 안마당(논산 명재고택)



그림 4. 사랑채와 사랑마당(논산 명재고택)

1.3. 한옥의 구조

1) 한옥의 구조방식

한옥의 구조방식은 시대·지역·계층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여기서는 전통한옥의 보편적인 구조방식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한옥의 주구조는 목가구조(木架構造)다. 목가구조란 나무로 뼈대를 짜서 건물의 벽체와 지붕 등 구조체를 구성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목가구조는 동아시아와 북유럽 등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중요한 건축구조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현대에 환경친화적 구조방식으로 환영을 받고 있다.

전 국토에서 자라서 주위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소나무가 한옥의 주구조재이며 이로써 채의 기본 틀을 이룬다. 그리고 이런 틀 사이에 필요에 따라서 벽체와 창호를 만든다. 벽체는 대개 셋기둥인 중깃과 격자 모양의 외로 짜서 골격을 만든 후 양쪽에서 흙을 쳐서 만드는 토벽(흙담벼락)이다.

목가구조는 기본적으로 기둥, 보, 그리고 도리로 구성된다. 기둥은 수직력을 중력방향으로 지면에 전달하는 부재이며, 보는 건물의 깊이방향으로 기둥 사이를 연결하고 하중을 받는 수평부재다. 그리고 도리는 기둥 위에서 서까래를 받는 수평부재를 말한다. 한옥의 구조방식은 대개 사용된 도리의 수를 기준으로 분류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가구구성은

삼량집이다. 여기에 퇴공간이 부가되면 오량집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일반적 규모의 양반주택은 대개 오량집의 구조를 가지며, 규모가 더 커질 경우 칠량집이 된다.



그림 5. 한옥의 주요 구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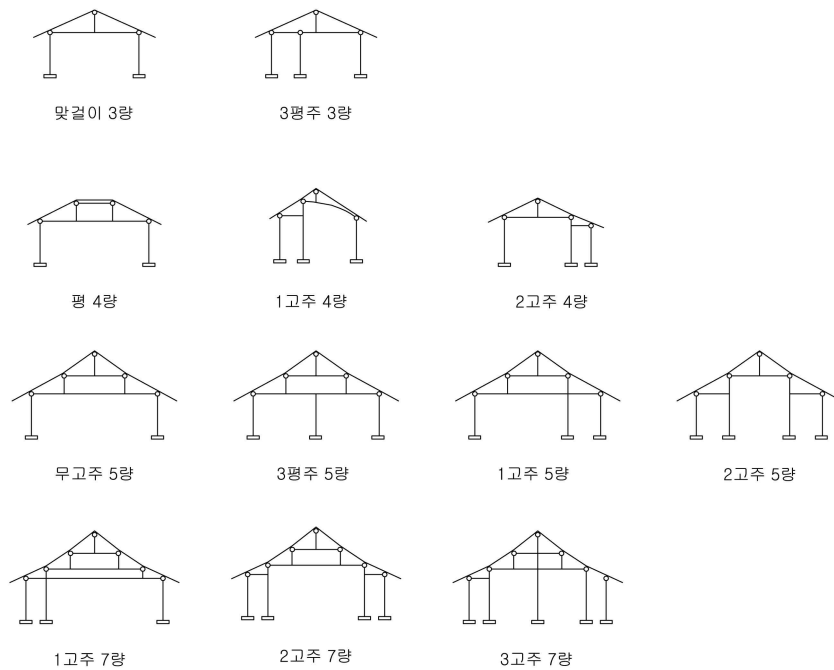


그림 6. 한옥의 가구방식

그림 7에서 보듯이, 한옥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붕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맞배지붕·우진각지붕·팔작지붕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맞배지붕은 배라 부르는 지붕판이 용마루에서 맞닿은 가장 간단한 형식의 지붕이다. 이는 간단한 구성의 건물에 많이 쓰였는데, 사당건물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맞배지붕의 특징은 구성이 단순하고 양측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우진각지붕은 앞·뒤쪽과 옆의 지붕판이 추녀를 중심으로 분절된 지붕형식이다. 팔작지붕은 삼각형 모양의 합각에 의해 양측이 한정되는 완결적인 지붕형식이며 따라서 외관이 단정하고 완성적이다. 이밖에도 용마루가 없이 하나의 꼭지점에서 지붕판들이 만나는 모임지붕이 있다. 모임지붕은 건물의 평면형태에 따른 지붕판의 수에 따라서 사모지붕·육모지붕·팔모지붕 등으로 불린다. 여러 지붕 형식이 같은 건물군 내에서 쓰일 때 지붕의 형식은 건물의 위계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팔작지붕이 가장 위계가 높으며, 우진각, 맞배의 순으로 위계가 낮아진다. 따라서 대개 사랑채에는 팔작지붕이 쓰이고 행랑채에는 맞배지붕이 쓰인다. 다만 사당에는 이러한 위계성에 관계없이 양 측면으로 확장이 용이한 맞배지붕이 선택된다.



그림 7. 전통주택 지붕의 종류
(출처: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3, 344쪽)

2) 한옥의 구조적 합리성

한옥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구조의 합리성이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이다. 한옥은 대개 보가 굵으며 기둥은 상대적으로 가늘다. 특히 대들보의 경우 좀 과장되게 보일 정도로 큰 부재가 쓰인다. 그런데 이를 구조역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보면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특징은 매우 육중한 한옥의 지붕이 갖는 하중을 무리 없

이 기둥을 통해 지면에 전달하기 위해서 채택된 합리적인 구조방식이다. 곧 큰 단면을 가진 보가 휨모멘트, 곧 부재를 휘는 힘을 흡수해서 기둥에 전달되는 힘을 감소시키는, 구조역학상 유리한 구조방식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가는 기둥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평면에서 기둥이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므로 공간의 구성과 이용 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한옥은 이같이 부재를 선택하는 데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합목적적인 미학을 갖는다.



그림 8. 대청의 구조(논산 명재고택)

2. 한옥의 미학과 문화

2.1. 한옥의 미학

한옥의 외관은 단순한 선들로 구성되며 한옥의 아름다움은 많은 부분 선의 아름다움에 기인한다. 지붕(기와와 서까래), 외벽(인방과 기둥), 기단 등의 부위에서 곡선과 직선들이 조화롭게 구성되며 여기에 창호의 띠살이 더해져서 아름다운 한옥의 입면이 만들어진다. 특히 한옥의 선을 이루는 부재들은 쓰임새에 부합되는 자연스런 형상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한옥은 부드럽고 자연스런 아름다움을 갖는다.

한옥의 외관은 내부의 용도와 논리적으로 대응한다. 부엌, 마구간, 창고와 같이 흙바닥인 공간 또는 대청과 같이 마루바닥인 공간은 온돌방은 벽체 및 개구부의 재료가 다르다. 전자에는 대개 널빤지를 사용한 판벽(板壁)이나 판문이 설치되고 후자에는 토벽과 창호지를 바른 띠살문이 설치된다. 또한 전자에는 천장에 반자가 설치되지 않고 후자에는 반자가 설치된다. 이같이 한옥은 공간의 기능을 외관으로 드러냄으로써 대청성과 같은 형식미를 갖기보다는 변화있는 외관이 된다.

개구부 처리에서도 합목적성이 아름답게 드러난다. 주택에서 개구부는 조망, 채광 그리고 통풍을 위한 창과 출입을 위한 문으로 나뉘는데, 한옥에서 창과 문의 이러한 구별은 개구부와 바닥 사이에 설치된 머름의 존재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머름이 설치되어 있으면 창이고 머름이 없이 개구부가 바닥까지 내려오면 문이다. 머름은 외기의 침

투를 막고, 실내의 온기가 외벽으로 방출되는 것을 억제하며, 내부공간을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차폐해주는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머름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짜임새 있는 한옥의 입면이 만들어진다. 이같이 고유의 기능과 미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머름은 한옥에서 독특하게 발달된 요소의 하나다.⁷⁾



그림 9. 머름대 위의 창(연경당)

이렇게 한옥의 아름다움은 선형적이고 절대적 미보다는 공간구성과 구조가 갖는 함목적성이 꾸밈없이 드러남으로써 느껴지는 체험적 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곧 한옥은 함목적적인 미학을 갖는다고 하겠다. 또한 한옥에는 불필요한 장식이 없는 절제의 미학이 있다. 한옥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은 치장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실용적 또는 상징적 기능을 가진 구성요소들의 합리적 구성이다. 이러한 한옥의 미학은 당시 사회를 지배했던 성리학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외양의 꾸밈을 싫어하고 내용과 실질을 숭상하는 것은 성리학 이전부터 존재해온 유가미학(儒家美學)의 오랜 전통이었다.

2.2. 한옥의 생활과 주거문화

1) 생애주기(life cycle)와 주거공간의 대응

부계의 확대가족을 이루는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 채에 나뉘어 거주한 한옥에서는 거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사용하는 실의 위치가 달라진다. 한옥의 각 실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생애주기와 가족 내에서의 위상에 대응한다. 남녀별로 생애주기에 따라 사용하는 실들이 바뀌는 전형적인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의 경우를 보면, 안방에서 태어나서 옷방에서 소년시절을 보낸다. 장성해서 결혼을 하면 작은사랑에 거쳐하며 부친이 작고하고 명실상부한 가장이 되면 큰사랑방으로 옮겨 기거한다. 곧, 남자는 생애주기에 따라 '안방 ---> 옷방 ---> 작은사랑 ---> 큰사랑'의 순서를 거치며 일생을 보낸다. 여자는 역시 안방에서 태어나서 옷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결혼을 하면 집을 떠나 시댁의 건넌방에 거처를 정한다. 그 뒤 시모가 작고하거나 생활의 일선에서 물러나면 그 집의 안방을 차지한다. 이때 그는 장독대 등 재산의 관

리권을 행사하게 되며 명실상부한 안주인이 된다. 그리고 한 집의 생활을 관리할 기력을 잃으면 며느리에게 안방을 내주고 다시 건넌방으로 거처를 옮긴다. 곧 여자는 생애주기에 따라 ‘안방 ---> 옷방 ---> (시댁의) 건넌방 ---> 안방 ---> 건넌방’의 순서를 거친다.

이와 같이 한옥은 전통적인 생활의 규범과 논리에 잘 대응하는 공간체계를 갖추으로써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2) 한옥 공간이용의 특성

① 위계성

조선시대 중기 이후 확고히 자리잡은 성리학적 윤리 규범에 따라 주거공간의 이용에도 신분, 성(性), 그리고 세대(世代)에 따른 명료한 위계질서가 있다.

먼저, 신분에 따른 공간의 분리는 엄격한 채의 분리로 나타난다.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사당은 주인의 영역이고, 문간채나 행랑채는 하인들의 영역이다. 이들 영역의 위계는 채의 상대적 규모와 여러 가지의 건축적 처리의 차이로 나타난다.

한옥의 강력한 공간구성 원리 중 하나는 성에 따른 공간의 분리이다. 여성은 안채를 중심으로, 그리고 남성은 사랑채를 중심으로 생활한다. 이렇게 성별로 공간의 영역이 분명히 나뉘며 그 영역의 출입구도 분리된다. 이러한 사용공간의 성별 분리는 모든 주거공간에 적용되며, 심지어는 변소의 사용에도 나타난다. 한옥에서는 변소가 남자가 사용하는 외축(外厠)과 여자가 사용하는 내축(內厠)으로 나뉘어 설치된다. 이같이 성별로 사용하는 공간이 뚜렷이 분별되는 것은 한옥이 갖는 두드러진 특성 중의 하나다.⁸⁾

삼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한옥에서는 사용공간을 세대 별로 적절히 분절시킴으로써 가족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다. 세대별 공간의 분리는 안채에서 안방과 건넌방, 사랑채에서는 큰사랑과 작은사랑의 구성으로 나타난다. 안방과 큰사랑은 부모세대의 중심공간이고 건넌방과 작은사랑은 자녀세대의 중심공간이다. 세대 별 공간의 사이에는 대청이 위치해 두 공간을 연결하면서 분절하여 준다.

② 융통성과 확장성

건물의 외벽을 경계로 네·외부 공간이 뚜렷이 나뉘는 현대건축과 달리, 한옥은 실내·외 공간이 연계되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용된다. 실내공간은 뒷마루로 마당과 연결되는데, 실내와 마루 사이에는 들어열개문이 설치된다. 밖으로 열고 들어올려 들쇠에 매달 수 있는 이 들어열개문을 설치함에 따라 계절에 따라 또는 공간 이용의 필요에 따라 실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다. 또한 전면이 개방된 대청과 안마당은 제사 등의 의식(儀式)을 행할 때 서로 연결되어 같은 활동에 사용된다. 이같이 한옥에서는 가변성 있게 구성된 벽체 또는 개구부를 통해 실내외 공간이 긴밀히 연계되어 사용됨으로써 주거공간의 이용이 융통성과 확장성이 있다.



그림 10. 들어열개문(경북 김천 원터마을 방초정)
 들어열개문은 벽이 되기도 하고 천장이 되기도 한다. 이런
 가변성은 한옥의 주요한 특성인데, 현대건축도 최근 가변성
 을 지향하고 있다.

3. 한옥의 가치와 활용 방안

3.1. 한옥의 가치

1) 환경친화적 주거

①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한옥

현대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는 지금부터 80여 년 전 그의 저서 《건축을 향하여(Vers une Architecture)》의 2차·3차 증보판(1924, 1928) 서문에서 집과 건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집은 우리를 에워싸므로써 적대적인 자연현상과 떼어놓고, 우리에게 인간적 환경을 제공하면서 인간적 경계가 되어야 한다.

건축, 그것은 감동을 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옥은 인간을 자연과 맺어준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감동의 원천이 되려 하지 않고 자연에 융합되는 건축을 지향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대신에 자연의 감동적 장면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뿐이다.

이런 한옥의 특성은 경상북도 경주시 독락당 일곽의 정자인 계정에서 잘 볼 수 있다. 계정은 평평한 땅 위에 높이 세워지는 대신 계곡에 걸쳐 낮게 자리해서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낮추었다. 계정의 한쪽은 인간의 공간이고 다른 한쪽은 자연의 공간이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간 모두에 놓여졌다. 인간의 공간에서 바라보면 정자는 마당의 연장이요 담의 연속이다. 계정의 마루는 모두 그것이 접한 마당의 높이와 거의 같게 맞추어졌다. 반면에 자연의 공간인 계곡에서 바라보면 계곡의 암반을 디디고 선 이 정자는 마치 나무들처럼 자연에서 높이 자란 유기체로 보인다.(그림 11, 12)

이렇게 인간과 자연에 두 다리를 걸친 정자는 인간의 공간을 이끌어 자연으로 합류시켜 준다. 그래서 현대건축은 예외 없이 인간에게 그 정면을 내보이는 반면, 정자는 자연을 향해 정면을 드러낸다. 여기서 정자는 인간에게 보이기 위한 건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자는 인간과 자연이 나뉠 수 없다는 생각이 만들어낸 건축이다.



그림 11. 인간의 공간에서 본 계정



그림 12. 자연 공간에서 본 계정

② 일광 조절장치로서의 처마

전통한옥의 처마는 그 조형성으로 인해 미적 대상으로 인식되지만,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일광 조절 장치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열의 완충공간을 형성하여 여름철에는 외부의 가열된 공기, 겨울철에는 외부의 한랭한 공기가 실내로 침입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주택 내부공간의 보온에 도움이 되는 요소다.

필자는 경북 김천시 원터마을에 있는 작은종가의 안채를 대상으로 처마의 역할을 분석했다. 이 한옥에서 처마는 전면(남동향)으로 1.3m, 우측면(남서향)으로 1.0m, 좌측면(북동향)으로 0.4m, 후면(북서향)으로 0.3m 돌출되었다. 전면 처마의 경사는 37도이다. 원터마을이 위치한 북위 36도 지역에서 일사각은 하지(6월 22일) 때 77도, 8월 15일 68도, 9월 15일 57도이다. 기단에서 처마 하단까지의 높이는 2.7m이다. 이 때, 처마와 기단이 뒷마루 끝에서 1.3m 돌출한 작은종가 안채 남쪽면의 일조상태를 보면, 하지 때 기단의 48%, 8월 15일에는 기단의 84%, 9월 15일에는 기단 전부와 뒷마루 일부가 일조된다. 곧, 여름철에는 남쪽의 햇볕이 주택의 내부공간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아 냉방부하가 작으나 겨울철에는 뒷마루까지 비추므로 태양열에 의한 난방효과가 있다. 한옥은 에너지 측면에서 합리적인 단면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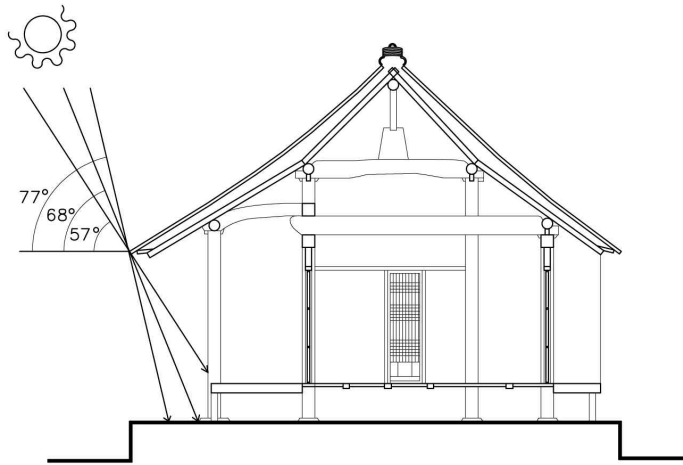


그림 13. 처마의 일광 조절 기능 분석(원터마을 작은증가 안채)

③ 여름에 시원한 전통한옥

전통한옥에서는 여름철을 시원하게 날 수 있다. 그것은 한옥을 이루는 채·마당·담 등의 요소가 지역의 미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열환경에 유리하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이다. 명재고택의 경우, 여름철에 대청은 안마당이나 뒤란보다 2~3도 정도 기온이 낮다. 한여름에 대청으로 바람이 유입되는데,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이 셀 경우(마당에서 0.1m/s의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의 크기가 1m/s 이상이면), 이 바람을 대청에서 받아들여 뒤란으로 보낸다. 대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의 크기가 약할 경우, 마당의 상승기류에 의해 뒤란의 시원한 공기가 대청으로 유입된다. 이런 대류 현상에 의해 여름에도 대청에서는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그림 14)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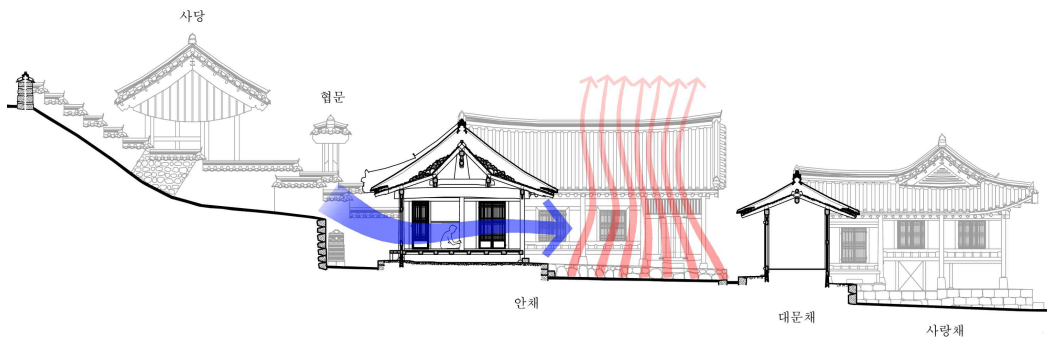


그림 14. 명재고택 대청의 냉각효과 개념도(‘류영렬, 이도원 2008’을 토대로 작도함)

2) 공동체적 주거

공동체적 협동작업을 통해 생산된 한옥은 공동체와 상호관련성을 갖는다. 유기적인 복합체인 한옥은 수많은 부재들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일종의 조립식 건물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한옥 건물을 짓는 데는 많은 세분된 인력이 필요하다. 그 복잡한 건축의 과정은 대목이 주도하지만 공동체를 이루는 마을 사람들이 참여한다. 이렇게 전통한옥은

공동체적 생활을 토대로 지속되어 왔고 전통한옥의 건축은 마을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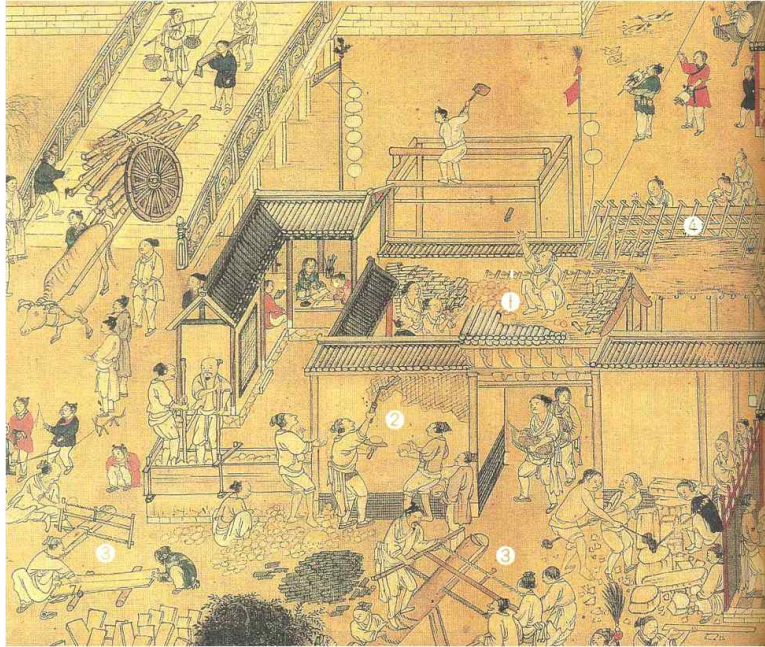


그림 15. 태평성시도

전통한옥의 사랑채 영역은 한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의 활동을 담는 공간이다. 따라서 명재고택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랑채 영역은 폐쇄적이고 내향적인 안채와 대조적으로 개방적이다. 명재고택의 사랑채의 누마루는 공동체의 공간인 마을로 시선이 열리고 사랑마당은 넓고 개방적으로 조성되었다.(그림 4 참조)

3.2. 한옥의 활용 방안

1) 한옥의 보전과 활용의 상관관계

역사문화적으로 의미가 큰 한옥을 문화재로 지정해 ‘보전’하는 것은 필요한 문화정책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보전이란 보존과는 다른 말이다. 두 말이 비슷해서 혼용이 되기도 하지만, 엄밀한 뜻은 서로 다르다. 전자가 원형의 근간을 유지하며 새로운 조건에 맞게 다소의 변경을 수용하며 유연하게 유지 관리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반면, 후자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보전은 관리와 활용의 개념을 내포하는 용어로, 역사문화적 진정성(authenticity)과 현재의 현실적 요구의 타협을 의미한다.

여기서 보존 대신 보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한옥이 과거의 일정한 시점에 얼어붙은 하나의 화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뜻에서다. 그래서 한옥이 거주공간으로서 생명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지어진 한옥이라면 19세기의 요소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현대 주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을 세심

히 살피는 정교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나무·흙 등 자연재료로 지어져 유기적으로 갱신되는 건축인 한옥은 보존이 어렵다. 또한 다른 문화유산과 달리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주거에 있어서 원형 유지, 곧 보존은 대단히 어렵다. 과거에 고정된 주택에서 현대의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원형의 유지를 추구하는 한옥이나 민속마을에서는 필연적으로 거주자의 생활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거주자가 떠나 집이 비게 되면 관리가 되지 않아 한옥은 급속히 퇴락한다. 요컨대, 한옥에 있어서는 활용의 주체와 대상(한옥)이 모두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존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2) 문화유산 보존의 경제학¹⁰⁾

① 전제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유산 보존의 교육적, 환경적, 문화적, 미학적,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문화유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주로 지역의 재료와 인력을 사용하므로 특히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경우, 지역 내 역사지구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역사지구의 주택들이 다른 지역시장들보다 평가수준이 더 높다.

한국의 경우, 2009년 하반기 6개월 동안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한옥 10호에서 숙박 영업을 한 실적을 보면, 1천명 이상이 숙박을 했으며 1일 평균 호당 숙박객수는 6명, 수입은 12만원 이상이다. 이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한옥에서는 숙박객이 2,800명으로, 1일 평균 숙박객수가 16명, 수입은 32만원이었다. 한옥 숙박 운영자들은 숙박률 40% 정도를 손익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보존주의자들이 지자체장, 한옥소유자, 경제개발 관료, 도시계획 관료, 부동산업자 등 한옥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권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유효한 관점은 ‘보존의 경제적 가치’다. 경제적 가치를 매개로 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한옥 자원의 훼손과 멸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② 보존의 경제적 파급효과

미국 상공부의 산업생산 영향 측정 방법에 따를 때 문화유산 보존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재료 사용과 인력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동일한 금액이 투자될 경우, 보존은 신축공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미국의 경우, 전형적인 역사적 건물의 재활용 프로젝트에서 전체 비용의 60~70%가 인건비로 쓰인다. 전통한옥의 보존은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고령사회의 신산업으로 정착할 잠재력이 있다.¹¹⁾

둘째 가구 수입의 증대다. 한옥을 숙박·식사의 장소로 활용해 가구의 수입을 높일 수 있다. 이때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셋째 다른 산업과 연계한 수요 창출이다. 문화재 보존을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문화유산관광은 전 세계 관광의 37%를 차지하며,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 문화관광객은 일반 관광객에 비해 하루에 더 많은 소비를 하고, 더 오래 머물며, 더 많

은 장소를 방문한다. 미국과 노르웨이의 통계를 보면, 관광객들이 문화유산을 방문할 때 소비는 문화유산 자체(총 소비의 6~10%)에서가 아니라 문화유산이 위치한 도시(지역)의 호텔·상점·식당 등에서 대부분 소비된다.

③ 지자체가 한옥 보전을 지원하는 근거

그동안 전통한옥을 포함한 문화유산의 보전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지자체의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특히 옛 도심의 재생과 관련해서 저평가되어 왔다. 이제는 한옥이 지역의 경제적 자산이며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재급 한옥은 지역의 방문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교육적 체험 장소, 또는 개성있는 숙박이나 컨벤션 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쉬어가는 코너’ 참조) 또한 전통한옥이 집단적으로 보전되는 한옥마을 또는 역사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기여를 보여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3) 전통한옥의 활용을 위한 전략

① 입지·규모에 따른 분화된 전략 수립

- 문화관광의 대상으로 활용: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근 지역의 한옥을 비롯하여 다른 자산들과 연계하여 흡인력을 높이도록 한다.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품격 있는 의식·이벤트의 장소로 활용: 다도, 관례(성인식), 혼례, 금혼식 등의 장소로 활용한다. 한옥을 한복·한식·한글·한국음악·한지 등 이른바 한스타일과 관련한 활동의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와 현대 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숙박의 장소로 활용: 2010년 5월 현재 전국에서 260여 호(70% 이상이 문화재 한옥)의 한옥이 한옥체험업(문화관광부에 60여 호가 등록된 상태임)에 활용되고 있다.¹²⁾ 단체 관광객이 많으므로 일정한 규모가 요구되며, 현대 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② 유·무형의 문화자산(한옥과 그 공간의 의미)를 함께 보전

한옥을 껍데기만 보전하는 것으로는 사람들이 그 한옥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유도하거나 한옥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옥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옥의 공간이 갖는 의미를 드러내는 전시 등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함께 보전하는 것은 한옥의 보전과 관광자원화에 중요한 개념이 되어야 한다.

심리적 접근성이란 관광객들이 건축자산에 대해 관광의 대상으로 매력과 친근감을 느끼는가 하는 문제이다. 심리적 접근성은 대상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건축자산을 관람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건축물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한 관광이 흥미로울 리는 없다. 따라서 건축자산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은 그것의 역사·문화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활용함으로써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건축자산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는 좋은 방법은 건축공간에서 관련되는 전시를 하거나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는 건축물이 밖에서 관람되는 대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생활 또는 활동과 관련되는 대상임을 인식하게 해주며, 건축자산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방법이다. 건축자산에 대한 정보는 관광의 사전에 확보되는 사전정보 그리고 현장에서 확보되는 현장정보로 나누어볼 수 있다. 현장정보는 건축물을 소개하는 팸플릿 등의 자료를 통해서 또는 실제 안내자로부터 얻는 정보를 말한다. 충실한 안내자로부터 관광의 현장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공간의 의미를 드러내는 전시나 이벤트가 있을 경우 공간에 대한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얻고 한옥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 1) 송인호, 배형민, 전봉희, 《한옥의 정의와 개념 정립》, 문화관광부, 2006. 12, 22쪽
 - 2) 위의 책 등을 참조.
 - 3) 이원교, 〈전통건축의 배치에 관한 지리체계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 4) 《주자가례》는 선비들이 지켜야 할 예제를 규정한 책이다. 주자는 중국 고대의 예제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윤리체계를 설정했다. 그 중 특히 중시한 것은 제사를 지내는 제례(祭禮)이다. 주자가례는 일찍부터 조선의 선비 사회에 알려졌지만 조선초기에는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7세기 중반에 들면서 가례의 내용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의 전통 주거문화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235~236쪽)
 - 5) 위의 책, 236쪽
 - 6) 본래 각기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던 온돌과 마루가 한 건물 안에 구성되는 것은 대략 고려말경부터라고 추정된다(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p.214).
 - 7)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3, 291~292쪽
 - 8) 같은 유교문화권인 중국주택을 보면, 결혼 전에는 공간의 성별 분리가 엄격히 지켜지나 결혼 후에는 그것이 그리 중시되지 않는다.
 - 9) 류영렬, 이도원, 〈윤중고택에서 관찰한 열과 바람의 공간적 특성〉, 《한국의 전통생태학 2》, 사이언스북스, 2008
 - 10) Rypkema, Donovan D., *The Economics of Historic Preservation*,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2005(임종현 옮김, 《역사보존의 경제학》, 문운당, 2008) 참조.
 - 11) 2008년 현재 한국의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10.6%로,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인 사회)를 넘어 빠르게 고령사회(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14% 이상인 사회)를 향하고 있다.
 - 12) 2010년 5월 21일 (사)한옥체험업협회 윤완식 회장의 진술.